



실전처럼...승리 담금질 준플레이오프에 나서는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KIA와 LG의 5전 3선승제 준플레이오프 시리즈는 오는 17·18일 광주에서 1·2차전을 치르고, 2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3차전을 치른다. 먼저 3승을 거두면 삼성과 한국시리즈 진출을 다툰다. /김애리 기자

호랑이군단 2년 만에 가을야구...전남광주가 들썩인다

KIA, 17·18일 광주서 LG와 준PO 1·2차전
정규시즌 9승7패 우위...최근 7연승 자신감
김도영 해결사 역할...네일 1차전 선발 유력
입장권 예매 삼시간 매진...응원 분위기 확산
식당·주점·편의점 등 지역 상권 특수 기대

전남광주에 다시 가을야구가 찾아온다.
2024년 통합 우승 이후 2년 만이다. KIA 타이거즈가 홈 팬들 앞에서 다시 정상에 도전한다.
2년 만에 가을야구 무대에 나서는 KIA를 향한 전남광주 야구팬들의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홈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응원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호랑이 군단'의 가을 질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6·16면
KIA는 오는 17·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 1·2차전을 치

른다. 5전 3선승제다. 홈 2연전을 마치면 19일 하루 쉼 뒤 2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3차전을 치른다. 먼저 3승을 거두면 삼성과 한국시리즈 진출을 다툰다.
KIA는 지난해 리그 8위에 그쳤다. 올해는 막판 순위 경쟁 끝에 3위를 차지했다.
첫 관문은 또 LG다. 정규시즌 막판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툰 상대다.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맞붙는다.
두 팀이 포스트시즌에서 만나는 것은 2016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에는 4위 LG가 5위 KIA를 꺾고 준플레이오프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자신감은 충분하다. LG전 7연승이 근거다.
KIA는 올 시즌 LG에 상대 전적에서 9승 7패로 앞섰다. 특히 마지막 7차례 맞대결을 모두 이겼다.
이 과정에서 LG를 제치고 3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12일 최종전에서도 4·2로 승리하며 준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뒷심이 돋보였다. 경기 막

판 승부를 뒤집는 장면이 잇따랐다. 접전에서 쌓은 승리 경험은 단기전을 앞둔 KIA의 강점이다.
그 중심에는 김도영이 있다. 김도영은 올 시즌 LG전에서 4홈런, 12타점을 올렸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결정적인 장타를 터뜨렸다. 이번에도 그의 한 방이 필요하다.
마운드에선 '에이스' 네일의 1차전 선발 등판이 유력하다. LG는 토크스트를 선발로 내세운다. 네일은 올 시즌 13승 7패, 평균자책점 3.49를 기록했다. LG를 상대로는 3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4.58이다. KIA는 네일의 호투를 앞세워 첫 승을 노린다. 2차전 선발은 올라가 말을 가능성이 크다.
불편의 안정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KIA의 정규시즌 LG전 불펜 평균자책점은 3.04다. 선발진의 4.46보다 낮다. 마무리 카드로는 전상현이 꼽힌다.
준비할 시간도 확보했다. KIA는 정규시즌을 마친 뒤 휴식과 훈련을 병행했다. 이범호 감독은 나흘간의 휴식이 경기 감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2면에 계속 /주홍철 기자

‘반도체 쇼크’ 코스피 7%대 폭락...5천500선 턱걸이

하이닉스 11%·삼성전자 9% 하락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15일 7%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천542.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9.48% 내린 21만원에, SK하이닉스는 11.06% 내린 128만2천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난 7월28일

(각 -13.39%, -16.02%)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제 우하향, 무려 31%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인 삼성전자만 1조4천573억원, SK하이닉스는 1조1천112억원 내다 팔았다. 기관이 두 종목을 순매수했지만 그 규모는 5천700억원 가량에 그쳤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성장세와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물가와 국제유가 오름세까지 겹치며 형

성된 고금리 환경에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한 모습이다.
장 초반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차레대로 발동되기도 했다. 양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같은 날 울린 것은 지난 7월29일 이후 약 두달 만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반도체주 하락세에 대해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투자 조달금 문제가 부각되며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알림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2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가곡·월드뮤직 등 다양한 레퍼토리 선봬

가을이면 영감처럼 떠오르는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의 주인공 바리톤 김동규가 10월,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오는 10월24일(토)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가곡과 클래식은 물론 월드뮤직, 영화 OST, 뮤지컬 넘버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집니다. 'Il Mondo', '봄치녀', '그리움', 'Stand by Me', 'Bella Ciao'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이 김동규 특유의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펼쳐지며, 무대의 대미는 그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장식합니다.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



현진이 함께 무대에 오르고, 피아노·일렉트릭·드럼·베이스로 구성된 DK양상블이 풍성한 선율을 더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 독자 여러분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10월24일(토) 오후 7시
-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 ▲출연: 바리톤 김동규,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현진, DK양상블
-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 ▲예매: 예스24(9월15일 티켓 오픈)
- ▲문의: 광주매일신문 기획사업국 062-650-2078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